

과학기술교류관계는 대외경제관계 확대발전의 중요한 형태

리명숙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56페이지)

대외경제관계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맺는 경제관계이다.

대외경제관계는 해당 나라의 경제가 다방면적으로 발전하고 위력해질수록 각이한 형태로 더욱 확대발전된다.

과학기술교류관계는 현시기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형태로 된다.

과학기술교류관계가 현시기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형태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현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높은 단계의 대외경제관계형태이라는것과 관련된다.

과학기술교류관계가 현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높은 단계의 대외경제관계형태이라는것은 나라들사이의 과학기술적연계가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무시할수 없는 나라들사이의 경제적연계의 중요한 형태라는것을 의미한다.

이 의미는 크게 두가지 내용을 담고있다. 하나는 과학기술교류관계가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현시대에 부합되는 대외경제관계의 형태라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이 대외경제관계의 독자적인 하나의 형태라는것이다.

과학기술교류관계는 우선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현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대외경제관계형태이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인 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이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이것은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현시대의 특징이다.

현시대는 대외경제관계에서도 변화를 가져올것을 요구하고있다. 그것은 선행한 시대에서의 과학기술교류관계란 단순한 기계설비의 유상이전관계였던 사정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교류관계란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나라들사이에 주고받는 관계를 말한다.

나라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는 시작된지 오래다.

그러나 과학기술교류의 내용들은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생산에서 노는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부단히 다양해진다.

선행한 시대에서의 과학기술교류란 주로 상대적으로 앞선 기계설비들을 값을 치르고서로 주고받는것이였다.

과학기술의 갱신속도가 비상이 빨라지고 과학기술과 생산이 하나로 밀착되어있는 현

시대에 와서는 선행한 시대에서의 과학기술교류방법과 내용만을 가지고서는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다. 그것은 현시대에는 과학기술교류의 폭이 매우 크고 과학기술갱신속도가 비상이 짧아지고있기때문이다.

오늘날 나라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관계는 단순한 기계설비의 유상이전관계가 아니라 특허권, 상표권, 창의고안권과 같은 공업소유권에 대한 권리양도, 기술설명서와 설계도면과 같은 기술문건들의 제공, 특허권에 대한 사용권의 허가, 기술비결(Know-How)의 리용, 과학기술인재육성과 기술봉사 등을 포함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하나의 대상에 대한 과학기술의 갱신은 20세기초에 약 40년, 1930년대에 25년, 1950년대에 15년, 1970년대에는 8~9년, 1980년대에 3~5년, 1990년대에는 2~3개월에 한번씩 진행되었으나 21세기인 오늘날에 와서는 보름에 한번 또는 그보다 더 훨씬 단축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발전되고 앞선 기계설비들을 돈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하여서는 빨리 갱신되는 과학기술의 성과와 내용들을 생산과정에 체때에 도입리용할수 없으며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외경제적연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없다.

현시대의 과학기술교류관계는 단순한 기계설비의 유상이전관계가 아니라 특허를 비롯한 지적창조물들을 생산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리용하는 과정에 맺어지는 나라들사이의 경제관계로서 매개 나라들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한다.

이것은 현시대의 과학기술교류관계가 현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의 대외경제관계형태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과학기술교류관계는 또한 독자적인 대외경제관계의 한 형태이다.

과학기술교류관계가 독자적인 대외경제관계의 한 형태이라는것은 그것이 선행한 시대에서처럼 무역관계의 한 형태가 아니라 무역관계와 마찬가지로 대외경제관계의 당당한 형태이라는것을 말한다.

대외경제관계는 대외무역관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대외무역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전까지만 하여도 나라들사이의 경제관계에서 기본으로, 가장 중요한 형태로 되어왔다. 따라서 과학기술교류도 대외무역의 테두리안에서 소극적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나마 주로 상대적으로 발전되고 앞선 기술이 체현되어있는 유형상품으로서의 기계설비들이었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초까지만 하여도 나라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액은 상품무역액의 약 10%였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기술교류관계는 대외무역의 한 형태로서가 아니라 대외무역의 테두리를 벗어나 독자적인 대외경제관계의 한 형태를 이루고 진행된다.

대외경제관계의 형태와 그것이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고정불변하지 않다.

해당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또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대외경제관계의 형태가 미치는 영향관계에 따라 대외경제관계는 대외무역의 테두리를 벗어나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투자, 금융, 통화, 노동력이동, 과학기술교류관계 등 독자적인 대외경제관계의 형태들을 이루고 보다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끊임없이 확대발전하게 된다.

현시기 과학기술교류관계는 바로 대외무역의 한 형태로서가 아니라 대외무역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나라들사이의 대외경제관계의 한 형태를 이루고있다. 이것은 오늘날 과학기술교류관계의 역할과 지위가 비상이 강화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과학기술교류는 공업분야의 기술뿐만아니라 농업, 상업, 금융, 봉사부문의 기술도 다 포괄하고있으며 경영관리분야의 과학기술도 널리 교류되고있다. 오늘에는 전통기술뿐만아니라 첨단기술 그리고 주योग계설비나 공장일식과 같은 경질기술뿐만아니라 특허권, 기술비결, 기술리용권, 기술봉사, 기술상담 등과 같은 유연기술도 나라들사이에 광범히 교류되고있다.

교류되는 과학기술이 이와 같이 광범한 분야를 포괄하며 다양화되고있는것은 과학기술의 폭넓은 발전에도 기인하지만 오늘에 와서는 경제의 어느 분야도 선진과학기술의 도입이 없이는 그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특히 과학기술이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그 어느 나라나 가능한 모든 분야의 과학기술을 도입하려하기때문에 교류되는 과학기술이 포괄하는 범위가 확대되고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과학기술교류관계를 독자적인 대외경제관계의 형태로 출현하게 하였다.

이 모든것은 과학기술교류관계가 오늘날 현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보다 높은 단계의 대외경제관계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과학기술교류관계가 현시기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형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세계를 앞서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대외경제관계형태이라는 것과 관련된다.

지구상에는 수백개의 나라들이 있다.

이 모든 나라들은 다 잘살기를 원하며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전심한다. 그러나 민족국가들 단위로 나라의 경제건설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들의 기술발전수준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필연적으로 있게 된다. 그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백개의 나라들이 력사발전의 특성, 나라가 처한 자연경제적조건과 소여단계에서의 생산력발전수준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기때문이다.

더우기 지난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매개 나라에서 과학기술발전수준에서 심한 차이를 낳게 한다.

이러한 차이를 없애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자면 자체의 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나라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를 중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는 막대한 자금과 오랜 기간이 요구된다.

자료에 의하면 반도체의 연구개발비는 원가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하나의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는데만도 10년, 20년이상 지어 그것이 실험단계를 거쳐 생산에 도입되어 은을 내기까지는 역시 몇년, 몇십년씩 걸린다고 한다.

이런 조건에서 과학기술을 자체로 연구개발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실리가 있게 나라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를 발전시켜나가야 자금과 시간, 로력 등을 절약하면서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을 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울수 있다.

과학기술을 다 자체로 연구개발한다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이룩된 과학기술의 성과들

을 서로 교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시간낭비를 가져오며 그 어느때 가서도 세계를 앞서나갈수 없다.

나라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관계를 발전시켜나가면 연구기간을 5분의 1정도까지 단축할수 있으며 원료와 자재를 해결하고 로력을 리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100만분의 5로 줄일수 있다.

과학기술을 자체로 연구개발하는 사업과 함께 과학기술교류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기술적우세》를 떠들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호시탐탐 노리는 미제를 비롯한 추종세력들의 교활하고도 집요한 고립압살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세계를 앞서나갈수 있다.

과학기술교류관계는 오늘날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형태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보급의 주되는 통로로 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과학기술교류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대외경제관계발전에서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성과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제때에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속에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가 적극 추진되고 인민경제의 전반적기술장비수준이 높아졌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담보하는 현대적인 기계제작기지들과 전자자동화요소와 기구생산기지들이 꾸려져 우리의 공업이 첨단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내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과 과학기술교류를 강화할수 있는 우리 나라의 커다란 잠재력으로 된다.

우리는 과학기술교류관계가 대외경제관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나라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를 적극 발전시켜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과학기술교류, 대외경제관계